

고속도로 관통 광주 중외문화예술벨트 하나로 잇는다

호남고속도 상공 통과 오버브릿지 조성 계획
 새 비엔날레전시관~광주시립미술관 잇는다
 “벨트 일체화·접근성 향상·방문객 증대 기대”

광주시가 호남고속도로로 단절된 중외문화예술벨트를 잇는 오버브릿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기존 호남고속도로 상공에 오버브릿지를 건설, 고속도로가 끊어놓은 중외문화예술벨트를 일체화 시킨다는 것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외문화예술벨트에는 광주비엔날레·시립미술관·민속박물관·무지개다리·국립광주박물관·고인돌공원·고려청자 가마터·어린이박물관·예술의전당 등 지역 대표 문화예술 시설이 밀집해 있다.

그러나 호남고속도로가 문화예술벨트 정중앙을 관통하고 있어 벨트 권으로서의 일체감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차량을 이용, 문화예술벨트를 찾는 방문객들이 우회로를 이용하거나 고속도로 밑 비좁은 터널을 지나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고속도로에 가로막혀 도보로 문화예술벨트 전체를 둘러보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는 문화예술벨트 일체화 사업을 계획 중이다. 호남고속도

로 상공에 오버브릿지를 조성, 끊긴 벨트를 잇겠다는 취지다.

랜드마크가 될 만한 형태의 오버브릿지를 건립하면 또 하나의 볼거리가 추가되는 것은 물론 접근성 향상에 따른 방문객 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방문객들의 원스톱 문화예술 향유도 가능해진다.

광주시는 오버브릿지 조성을 위해 투트랙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중 하나는 국비로 광주예술중·고등학교 앞 비엔날레전시관 건립부지(현 주차장)~시립미술관에 이르기까지 길이 400m·폭 70m의 보행정원 형태의 오버브릿지를 만드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500억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는 문체부 등에 국비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다른 안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절충안을 찾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현재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문화예술벨트 구간에 오버브릿지를 조성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주시가 계획중인 보행정원이 아닌 일반 도로 형태



광주 지역문제 해결플랫폼 정책위원회 회의

27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정책위원회 회의에 강기정 시장이 참석해 신규정책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다. 광주시는 도로공사와 협의해 도로와 정원 보행로 형태를 겸하는 오버브릿지 조성안도 구상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통신이 단절된

문화예술벨트를 하나로 잇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오버브릿지 조성에 더해 현재 출구만 있는 용봉나들목 진입로 신설까지 이뤄진다면 문화에

술벨트로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현 비엔날레 전시관의 노후화에 따라 1181억 원의 예산

을 들여 현 매곡동 주차장 부지에 건축연면적 2만3500㎡, 지상 3층 규모로 새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

광주시, 전국 최초 광역평생학습도시 선포한다

“지역공동체 동반성장”...내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선포식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광역평생학습도시를 선포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9~30일 2023 평생학습 정책포럼과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하는 한편 전국 최초 광역평생학습도시 선포와 함께 협력·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광주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협력과 도약, 평생교육의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다.

오는 29일에는 ‘대전환의 중심,

광역평생학습도시의 출범-광주를 시작으로’라는 주제로 광역평생학습도시 선포식과 정책포럼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5개 자치구 모두 평생학습도시와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광역평생학습도시 선포를 통해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다짐한다. 모든 시민의 삶이 학습과 하나가 되는 ‘광역 평생학습도시 광주’ 선포식에서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비전큐브 퍼포먼스와 선언문 낭독을 한다.

광주시는 평생학습도시 선포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국가와 지역이슈에 발맞춘 연계 협력사업 발굴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마을과 지역공동체의 동반성장도 ▲전 생애의 시민이 평생학습에 참여·성장하는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통해 향후 국가·광역·기초로 연결되는 클러스터 구축과 집중진흥지구 등 연계 협력사업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30일에는 전국 평생교육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조선주 기자

라면값 13년만에 내렸다...농심 신라면·새우깡 가격 인하

내달 1일부터 최대 6.9%↓...라면가격 줄줄이 내릴 듯

농심을 비롯한 라면 업계가 라면 가격을 전격 인하하기로 하면서, 제과·제빵 업계로 가격 인하 바람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농심은 내달 1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각각 4.5%, 6.9% 인하하기로 했다. 소매점 기준 10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한 봉지의 가격은 50원, 1500원인 새우깡은 100원 낮아진다.

▶관련기사 4면

삼양식품도 이번 주 중으로 라면 주요 제품 가격 인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하 품목 및 인하율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오뚜기는 내달 중 주요 라면제품 가격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업계 1위인 농심을 필두로 라면업체들이 가격 인하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

라면 업체들이 제품이 인하에 나선 것은 제분회사가 내달부터 밀가루 출하가를 사실상 인하시키고 하면서다. 이에 라면 뿐 아니라 과자나 빵 등 밀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가격도 내리지 않겠냐는 관측 나오고

있다. 실제로 13년 전인 2010년 당시, 라면 가격 하락을 시작으로 제빵·제과 등 식품 기업들이 줄줄이 가격을 하향 조정해온 바 있다.

라면 업계가 제품 가격을 내린 것은 2010년이 마지막이다. 이때 농심은 신라면 가격을 2.7~7.1%, 오뚜기는 6.7% 인하했다. 삼양식품은 주요 제품의 가격을 2.9~6.7% 조정했다.

이명박 정부(MB 정부) 시절 밀가루 가격이 7%가량 인하되면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식품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자 라면 업계뿐 아니라 제빵·제과 등 관련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 롯데제과·크라운해태제과·파리바게뜨(SPC그룹)·푸레주르(CJ푸드빌) 등이 가격 인하에 동참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국제 밀 가격은 하락했다더라도 다른 원재료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할 여력이 없다는 불변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식품기업들이 주요 원자재 가격 인상을 근거로 제품 가격을 올려왔지만, 실제로는 다른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금리 등이 줄줄이 올라 가격을 조정할 것”이라며 “여전히 가격 인상 부담이 남아있다 보니 주요 원자재 가격을 따라 제품 가격까지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제분 업체들에 밀가루 가격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대한제분, 사조중앙원, 삼양사, 대신제분, 삼화제분, 한담, 삼양제분 등 제분업체 10여곳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밀 국제 가격이 하락한 것을 감안해 밀가루 가격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권형안 기자

- 스마트특성화 기반사업 선정 2면
- 日,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 3면
- 외환 10만달러 이내 신고 안해 4면

호남매일 23주년 창사

NAJU 나주시

GIVE NAJU LOVE

기부는 나주에 사랑입니다

나주시고향사랑기부제

116,769

1,814,858

51,550,000

NAJU

어디에 살든 나주에 기부할 수 있어!

#고향사랑e음 #나주사랑 #나주기부챗린지

116,769